

화학기업, 북한 핵실험 영향 단기적

동양증권, 석유·에틸렌 수급차질 없어 ... 단기적 주가 충격은 불가피

동양증권증권은 10월10일 북한의 핵실험이 화학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주가 충격에 그치겠으며 펀더멘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규원 애널리스트는 “북한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차후 경제봉쇄가 진행되더라도 국제 석유제품 및 에틸렌(Ethylene)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므로 화학기업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파키스탄 핵실험 전후 제품가격 동향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규원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추가 핵실험과 경제봉쇄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단기적인 주가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실제로 파키스탄 핵실험 이후 인디아 화학기업 Reliance 주가는 2-3개월간 40% 가량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 “주가 충격 이후 화학기업 투자전략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사이클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틈새 화학종목에 베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표적인 종목들로 한화, SK케미칼, 효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10>